《일본근대문학의 기원》

글로벌 시대의 독창성

글_권택영(경희대 영문과 교수)

낭만주의는 이성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사실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며 자연주의는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고 모더니즘은 총체성을 상실한 파편화된 현실을 그린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문학사를 공부해왔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서구에서는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나지만 우리 근대문학처럼 단기간에 모든 형식들이 나타나 거의 공존하는 경우에 과연 서구식 방법이 적절한가 묻게 된다. 문학사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는 없는가. 만일 예술의 기원이 한 국가의 형성과 이념에 의해 '사후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근대문학의 기원을 근대국가의 성립과 연결하여 살펴보자. 정책과 제도가 무슨 목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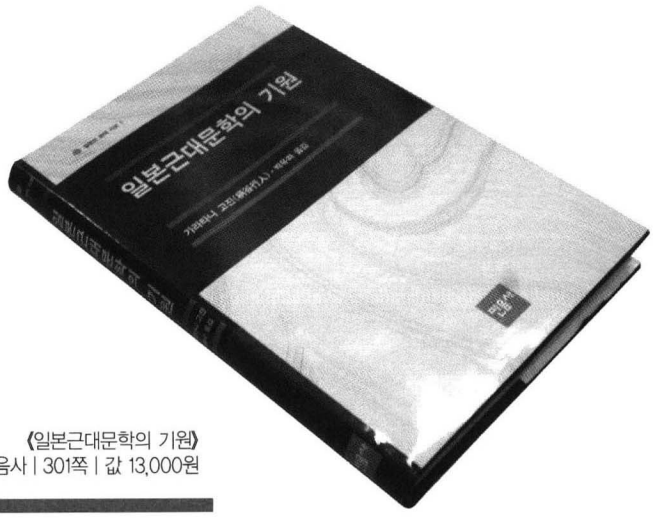
니체는 역사를 거꾸로 읽었다. 그의 발생학적이고 계보학적 역사관은 기원을 의심한다. 기원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제도와 이념에 의해 사후에 의미가 붙여진 것이다. 프로이트 역시 의미는 사후에 붙여진 것이라 말했고 마르크스도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관을 낯설게 만든 사상가들로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부활한다. 이것이 물질이나 제도가 정신을 구조한다는 문학의 '물질화' (materialization)다.

일본의 근대문학도 우리처럼 단기간에 여러 형식들이 나타났다. 인문학자 가라타니 고진의 독창성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출현했다. 그가 서구에 알려진 것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이 영역되어 미국의 듀크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후(1990)이고 최근 MIT 출판부에서 또 한 권의 책, 《트랜스크리틱》 *(Transcritique: On Kant and Marx, 2003)*이 출간되면서 유명해졌다. 동양 인문학자의 저서가 미국의 권위 있는 대학출판부에서 출간되는 일은 흔치 않다. 더구나 프레드릭 제이미슨이나 슬라보예 지젝과 같은 인문학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쉽지 않다. 고진이 인정받은 것은 일본문학의 고유성을 세상에 밝혔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서구의 현대사상을 일본문학의 이해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서구이론과 일본의 정체성 사이에서 상호 역동적 글쓰기를 했기 때문이다.

고진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을 밝히면서 "풍경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도대체 문학의 기원을 밝히면서 왜 산수화, 원근법, 풍경화 등의 그림이야기가 나오는가. 근대는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하기에 존재한다"는 명제로 시작했고 그 명제는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의 근거가 된다. 미술에서 근대는 원근법이 사용된 풍경화에서 비롯된다.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는 흐릿한 배경으로 돋보인다. 사물이 아니라 선험적 개념을 보게 하는 산수화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풍경화에 의해 '발견' 된다. 산수화는 늘 있었으나 풍경화와 다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존재는 사후에 '차이' 에 의해 붙여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립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일어난 상황을 보아야한다. 그럴 때만이 개념이 은폐하고 있는 기원이 드러난다.

고진은 이런 방식으로 문학사를 거슬러 읽었다. 일본의 메이지 20년대 정부는 여러 개혁안을 실시한다. 한자 폐지와 언문일치는 근대 자주평등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 조치로 실시되었고 내면을 강조하는 근대문학이 탄생한다. 소설의 개량은 연극의 개량과 함께 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던 짙은 화장은 맨얼굴에 의해 발견된다. 고백도 마찬가지다. 감추어둔 것을 고백한다고 알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고백이라는 제도가 그런 문학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고진은 일본의 근대주체 형성은 근대국가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핵은 아름답고 나약한 여성미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메이지 20년대에 있었던 지식과 제도가 은폐한 메타포다. 남성적 강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적 나약함이 탄생한다.

고진은 왜 이처럼 일본문학의 정체성을 의심하는가. 물론 그는 서구문학의 정체성도 의심한다. 근대문학의 기원이 사후에 만들어진 차이의 개념이고 일본의 제국주의 성립과 밀접하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가라타니 고진 지음 | 박유하 옮김 | 민음사 | 301쪽 | 값 13,000원

게 관련되어있다는 고진의 통찰은 서구의 사상가 미셸 푸코의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에서 원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푸코는 이성애를 정상으로 여기고 동성애를 낯설게 만든 서구의 근대를 니체의 계보학으로 다시 읽었다. 국가 중심의 근대 산업사회는 인구증가와 노동력이 필요했다. 남녀가 결혼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잘 기르는 일은 국가의 부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들은 성에 관한 여러 지식을 만들고 배포하여 이성애를 장려하고 동성애를 금지한다. 성을 규제하고 몸을 훈육하여 이성애를 기준으로 세운 것은 제국의 수립에 따른 것이지 자연스런 성이 아니었다. 이것이 푸코가 《성의 역사》 제1권에서 밝히는 '몸의 물질화' 다. 고진이 일본근대문학을 읽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푸코의 방식과 같다.

푸코의 방식을 연상시키는 고진의 작업을 왜 듀크 대학은 출간했을까. 일본문학이 근대제국주의 수립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밝힌 고진은 비록 푸코의 방식을 그대로 빌려오지만 일본의 정체성을 의심했기에 독창적이다. 그리고 읽는 방식이 정밀하고 치밀하다. 그것은 푸코의 방식일 뿐 아니라 니체의 계보학이다. 이것이 일본식 독창성이 아닐까. 서구의 전략이 유용할 때 그것을 정확히 모방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창조한다. 고진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서구의 새로운 읽기가 일본에 적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일본식 독창성이다.

물론 고진의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푸코의 작업이 그랬듯이 아무도 역사의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읽기조차 한 시대 지식과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2003년, 《트랜스크리틱》이라는 또 다른 독창성을 선보여 앞선 한계를 극복하려했다. 서구 근대 주체이론의 칸트와 유물론의 마르크스를 가로질러 둘을 꼼꼼히 다시 읽는다. 무엇이 그들을 닫힌 체계로 만들었는지 밝히면서 열린 체계로 다시 읽으면 둘의 닮은 점이 드러난다. 초월 주체와 돈이라는 텅 빈 절대성이다. 이로부터 고진은 현대 자본주의의 도착적 순환에서 벗어나는 길로 노동자와 소비자가 같은 입장임을 통찰하고 지역적 연합체계를 구축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고진의 대안이 얼마큼 주목을 받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문학자다. 그는 우리가 늘 말하는 '인문학의 세계화' 에 일본식 독창성으로 접근했다. 글로벌 시대에 문화의 세계화는 상품 생산보다 중요하다. 우리도 현대사상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 보편성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밝히는 독창성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 이 글을 쓴 권택영은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영문학 박사를 마친 뒤 현재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 김환태 평론상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감각의 시대: 라캉으로 영화읽기》 《라캉, 장자, 태극기》 《잉여쾌락의 시대: 지젝이 본 후기 산업사회》 등이 있다